광주·전남 기초단체장 非민주당 후보 勢확산

# 민주 진흙탕 경선속 '약진 앞으로'

## 현직 단체장 5곳 월등한 강세 보여

## 민주 텃밭 민심 이탈…돌풍 거셀 듯

오는 6·2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등 비민주계 후보들의 '돌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거세게 일었던 무소속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는 비 민주계 바람으로 이어질지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지방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건 민주당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잠재울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의 개혁공천을 꺼내들며 뭔가 참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방식과 관련한 부작용과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잡음이 이어지면서 '호남발 바람몰이'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또한, 이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면서 무소속 후보 등 비 민주계 돌풍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강세지역은 무소속 현직 단체장들이 있는 곳이다.

◇**광주 2곳**=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구청장 '3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남구민 등 지역민심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민배심원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이다. 황 청장은 현재 민주당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는 정재훈, 김화진, 최영호, 김영집 예비후보 간의 최종 승자와 한판대결을 벌이게 된다. '3선'이라는 부담도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국민참여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 광산구청장 재식시 다져놓은 조직을 그동안 줄곧 관리해 오며 '와신상담' 해왔던 점이 이번 선거에서 큰 폭발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전남 9곳**=현직 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성웅 광양시장과 황주홍 강진군수가 무소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선다. 여기에 광주·전남 유일한 여성단체장인 이 청 장성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잡음'이 자신들의 '3선' 또는 '재선'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 실망한 당원과 지역민의 실망감이 무소속을 향한 표심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비민주당

| 기초단체 | 민주당 | 비민주 |
|---|---|---|
| 광주남구 | 최영호·정재훈·김화진·김영집 | 황일봉 |
| 광주광산 | 유재신·민형배 | 송병태 |
| 광양시 | 남기호·서종식·정현복 | 이성웅 |
| 나주시 | 임성훈 (확정) | 주향득 |
| 신안군 | 강성종·남상창·박석배 | 박우량 |
| 강진군 | 강진원 (확정) | 황주홍 |
| 장성군 | 김양수 (확정) | 이 청 |
| 화순군 | 전완준·이윤모·임호환 | 임호경 |
| 곡성군 | 조형래 (확정) | 허남석 |
| 구례군 | 서기동 (확정) | 전경태 |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민주당이 당 영입을 위해 지도부가 공을 들일 정도여서 민주당 후보가 쉽게 꺽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방'에서 연거푸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체면을 되찾겠다는 각오여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다.

'3선' 도전에 나서는 황 군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어 민주당 후보의 쉬운 상대는 아니다. 황 군수는 민주당 강진원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색깔이 어느 지역보다 강한 강진에서 황 군수가 민주당 바람을 잠재울지도 관심거리다. 이 청 장성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김양수 후보도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면서 지역내 민주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처럼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로 이들 무소속 단체장 선거지역은 벌써 본선대결에 관심이 쏠리면서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이 무소속 연대를 통해 세를 결집할 경우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이들 후보들이 지역적인 특성과 다양한 변수를 감안할 때 무소속 연대라는 '접점'을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무소속 현역 단체장 외에는 진종근 전 고흥군수,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 임호경 전 화순군수, 신정훈 전 나주시장의 부인 주향득 후보, 전경태 전 구례군수 등도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쇄신모임에서 천정배, 김영진, 이석현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문제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장 경선 결과 번복 안된다"

## 민주 쇄신모임 경선 재심·배심원제 부적절성 집중 성토

정동영·천정배·추미애 의원이 핵심인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 '쇄신모임'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 불복 사태와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부적절성 등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현역국회의원 26명이 참여하고 있는 쇄신모임에서는 특히, 중앙당이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번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쇄신모임 3차 정례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민주당 주류 측에서 도입을 밀어붙인 배심원제와 광주시장 후보 경선 불복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우선 천정배 의원은 "정치신인 배려를 위한 배심원제가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도입되지 않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되는 등 지역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야권 연대와 관련, 초계파적 논의 기구 마련과 지도부의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의원도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석했던 전문배심원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중앙당의 재심요구 수용으로 광주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 정치세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 참석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쇄신모임 공동 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은평 구청장 후보 경선에 이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전문배심원이 지역배심원에 비해 훨씬 많이 참석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럴 경우, 지역 배심원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지도부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일 의원은 "배심원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 및 배심원 선정 방법과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중앙당 지도부의 장난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의원총회를 소집,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당원들과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도 "경선 방식과 야권연대 등이 소수의 비밀주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젊잖게 문제제기만 하다가는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 모임은 이날 이후에도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 수시로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를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재심위 첫 회의

# "전남지사 정치적으론 재경선 의견 많아"

## "광주시장 경선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14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와 전남지사 후보 경선 무산 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벌였다.

우선 전남지사 후보 경선 무산과 관련된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상당수 재심위원들이 실무적으로는 재경선이 안 되나 정치적으로는 재경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유 위원장이 전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날 이목희 전 의원의 불참으로 8명의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봉합한 뒤 최고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며 "재심위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수용 4표, 기각 4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장후보 경선 재심 청구와 관련, 광주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 선관위에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경선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 행위가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당선자와는 관계가 있는지 등을 밀도 있게 조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재심위 차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재심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 "재심위는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 신청 부분이 타당한지 등을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일뿐, 광주시민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과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에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 또 그 장애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 파악해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올리면 최고위가 정치적 판단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 기간이 1~2일 필요하니 2~3일 후에 2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용섭 예비후보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 정동채 예비후보측, 검찰 수사 촉구

민주당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14일 이용섭 의원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운영했으며, 광주시장 후보를 뽑는데 참여한 일부 시민배심원단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 후보 측 유몽희 대변인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섭 의원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유 대변인은 "이 의원은 지난 1월 초부터 서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D빌딩 12층에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며 "유사기관 운영은 최하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실형에 해당해 의원직까지 상실될 수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10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일부 시민배심원단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제보돼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지난 4차례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강운태 의원은 정 후보에 대해 '12년 국회의원 재직시 절 법안발의가 5건에 불과하며 통과건수는 1건이다'고, 이용섭 의원 역시 정 후보에 대해 '바다이야기나 도박공화국을 떠올리는 후보다'고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측은 "정 전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법안 건수는 의정정보에 수록된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 측은 "정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제기한 유사사무실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